

가상공간에서의 사회적 교류와 문화인지가 가상공동체 몰입에 미치는 영향

A study on the Impact of Social Interaction and Culture Perception in the Cyber Space on Member Loyalty to Cyber Communities

조 남 재*, 정 창 미**

njcho@hanyang.ac.kr, jcm1004@hanmail.net

*한양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한국관광연구원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17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부, 02-2290-1058,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2가 1-38 내자빌딩, 02-3704-0687

키워드: 가상공동체, 사회적 교류, 몰입, 사회적 인지

논문 요약 (국문)

정보기술의 발전과 인터넷의 빠른 확산으로 인하여 가상공동체가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매체로서 떠오르고 있다. 그러므로 가상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대인간의 관계형성 과정은 또 하나의 사회적 현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가상공동체 내에서 발생하는 대인관계형성과 관련한 변수를 도출하고, 이런 변수들이 가상공동체 사이트에 대한 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실증연구에 사용된 표본 수는 총 153개로서 가상공동체를 이용하는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남자가 120명(78.4%)이고 여자가 33명(21.6%)으로 나타났다. 설문 참여자의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20~24세가 33명(21.6%), 25~29세 109명(71.2%), 30~34세 10명(6.5%), 40~44세 1명(0.6%)으로 조사되었으며 20대 젊은 계층이 가상공동체에 대한 이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사용장소에 대한 분포를 살펴보면, 자택이 89명(58.2%)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였으며, 학교가 58명(37.9%), 직장 4명(2.6%), 인터넷카페 1명(0.7%), 기타 1명 (0.7%)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가상공동체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익명성의 이점과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해결하게 되면서 가상공동체 이용 시 심리적으로 편한 장소를 선택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상공동체 방문 목적에 따른 분류에 있어서는 크게 정보 서비스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그룹과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그룹으로 나누어 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데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그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데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연구모형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타당성 분석과 신뢰성 분석을 통하여 도출된 구성원과의 관계유지, 사회적 전환활동, 대화의 깊이, 구성원간의 이해, 대화의 다양성 의 예측 변인들을 독립 변수로 채택하였으며 5개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인 몰입과의 영향관계를 다중회귀분석으로 측정하였다. 우선 회귀분석으로 측정된 변수들을 살펴보면, 구성원과의 관계유지와 대화의 깊이 변수는 심리적 몰입과 행동적 몰입에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상공

동체 방문 목적에 따른 몰입을 분석한 결과 정보서비스를 목적으로 하는 그룹의 경우, 종속변수인 심리적 몰입에 대해 구성원간의 관계유지 변수가 유의적으로 나타났으며, 행동적 몰입에 대해서는 사회적 전환활동 변수만이 유의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그룹의 경우, 종속변수 심리적 몰입은 사회적 전환활동 과 대화의 다양성 변수가 유의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행동적 몰입에 대해서는 구성원간의 관계유지 변수와 대화의 다양성 은 유의적인 것으로 나와 가설을 채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의의는 가상공동체를 구성원들간의 대인관계 형성에 관한 관련 변수 도출 및 몰입기제를 중심으로 하는 탐색적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가상공동체 안에서의 대인관계 형성에 대하여 실증적이며 체계적으로 이론화하였고, 가상공동체를 이용하여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하려는 기업에게 기초자료로서 그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데서 의미를 가질 수 있다.